

## 로타리와 소아마비

### 폴리오(소아마비)

불구가 되게 하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소아마비 바이러스인 폴리오는 아직도 전세계 여러 지역의 아동들을 위협하고 있다.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신경 계통에 침투하여 몇 시간 내에 마비를 일으킨다. 연령에 상관없이 소아마비에 걸릴 수 있지만 특히 5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치명적이다. 소아마비는 치료는 불가능하지만 백신에 의해 예방이 가능하다.

### 폴리오플러스

로타리는 전세계 아동들에 대한 면역 활동을 통해 소아마비를 퇴치한다는 목표로 1985년에 [폴리오플러스](#) 프로그램을 런칭하였다. 로타리는 122개 국가 25억 명의 아동들에게 소아마비 백신을 투여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17억 달러 이상의 재정 지원과 함께 무수한 자원봉사 시간을 투입하였다. 또한 로타리의 주창 활동은 전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72억 달러 이상이 소아마비 퇴치에 기부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소아마비 퇴치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Polio Eradication Initiative)

[소아마비 퇴치 글로벌 이니셔티브\(GPEI\)](#)는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 1988년에 결성된 민간/공공 파트너십으로, 로타리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 [유니세프](#),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그리고 전세계 주요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로타리의 역할은 소아마비 퇴치 주창 활동, 모금, 자원봉사자 동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인식제고 등이다.

### 소아마비 퇴치 현황

현재 야생 바이러스로 인한 소아마비 발병국은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3개국 뿐이다. 2016년에 야생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의한 발병은 전세계적으로 37건 뿐이었다. 이는 하루에 1,000건 이상의 소아마비가 발병되던 1980년대에 비해 99.9%가 감소된 것이다.

### 극복해야 할 도전

현재 마지막 남아있는 1%는 발병지역의 특수적인 상황, 즉 지리적인 고립, 열악한 보건 인프라, 분쟁 및 문화적인 장벽 등으로 퇴치가 가장 어렵다. 소아마비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퇴치하지 않는 한, 어느 국가도 재발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

## **성공 보장**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로타리의 기부금은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의해 향후 3년 동안 매년 5,000만 달러까지 1달러 당 2달러 씩 상응된다. 로타리의 기부금과 게이츠 재단의 상응기부금은 가장 긴급한 소아마비 면역 활동을 비롯해 의료요원 및 실험실 지원, 그리고 보건 관계자 및 부모들을 위한 교육 자료 제작 등에 투입된다. 이외에도 정부, 기업체 그리고 개인 등도 기금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실천에 나서는 로타리**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 100만 명 이상의 많은 로타리 회원들이 자신의 돈과 시간을 기부해 왔다. 매년 수백 명의 로타리 회원들이 보건요원들과 함께 소아마비 발병 지역의 아동들에게 백신을 투여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에 나선다. 아울러 로타리는 유니세프를 비롯한 파트너 단체들과 함께 고립 지역, 분쟁 지역,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소아마비 퇴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규모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로타리안들은 동료 회원들에게 자원봉사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일 외에도 백신 냉장 운반을 비롯해 면역 활동을 위한 후방지원에 힘쓰고 있다.

## **‘요만큼’ 캠페인**

로타리의 소아마비 퇴치 공공 인식 확대 캠페인인 ‘요만큼’에 참여한 유명인사 및 일반인들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다. 이들 가운데에는 빌&멜린다 게이츠재단의 빌 게이츠를 위시하여 영화배우인 크리스틴 벨과 아치 판자비, WWE 슈퍼스타인 존 세나, 슈퍼모델 이자벨 폰타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데스몬드 투투 주교, 액션 스타인 재키 찬, 권투선수 매니 파퀴아오, 한국의 팝 스타 싸이, 유명 골퍼인 잭 니콜라우스,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펄만, 그래미상 수상자인 A.R. 라만, 앤젤리크 키드조, 지기 말리, 그리고 평화 운동가인 요르단의 누어 왕비 등이 있다. 소아마비 퇴치 친선대사이기도 한 이들은



공익광고와 SNS를 통해 그리고 일반 행사에 참석하여 대중들을 상대로 소아마비 퇴치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